

# 중소기업 금융 애로 여전... '고금리' 큰 부담

## 중소기업중앙회, 5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높은 금융비용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0.0%로, '호전됐다'는 응답(13.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판매 부진'이 5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원·부자

재 가격 상승'(51.5%), '인건비 상승'(33.0%)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부자금 이용 경험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40.4%였으며, 자금 사용처로는 '구매대금 지급'이 7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지급'(53.5%), '기존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30.2%)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 부족'과 '과도한 서류 요구'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은행 대출과 관련한 희망 사항 역

시 '대출금리 인하'가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으로는 '금리 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38.8%로 가장 많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14.0%) 등의 요구도 제기됐다.

내년도 전반적인 차입 여건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이 37.0%로, 지난해 같은 조사(32.6%)보다 4.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다만 새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기조

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4%가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민경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가장 큰 금융 애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리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실제로 완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기조를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 전북신협, 따뜻한 나눔 실천

## 신협사회공헌재단에 1억4293만원 기부

전북지역 신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탤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25년 전북지역 48개 신협이 신협사회공헌재단에 총 1억4천293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신협은 그동안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추진한 '1신협·1아동' 결연사업에 47개 신협이 참여해 총 5천640만원을 후원했다. 이와 함께 법인부문에서는 16개 신협이 8천273만원을, 개인부문에서는 3명이 380만원을 기부하는 등 48개 신협이 뜻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5년 출범한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의 기부협



동조합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천618명의 정기기부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652억 원에 달한다. 재단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동행경제', '인재양성', '지역나눔'을 핵심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전북신협과 전북현대모터스FC가 함께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행사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1천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본격 추진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스타트업 협업 희망 기업·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과 기업·기관 간 개방형 혁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30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과 혁신 기술 도입을 목표로,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매칭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십이 구축된 스타트업에는 기술 검증(PoC)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으로 최대 1억4천 만원이 지원된다. 2026년에는 총 120

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전략과제 해결형'과 '민간 선별·추천형'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전략과제 해결형은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이 '2025~2027년 중소기업 기술전략 로드맵'에 해당하는 협업 수요과제를 제안하면, 이를 해결할 스타트업을 공모·매칭해 협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약 30개 내외의 협업 과제가 선

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2026년 4월을 목표로 한다.

민간 선별·추천형은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이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한 스타트업을 중기부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업기업과의 동반성장 실적과 전담 조직, 예산 등 오픈이노베이션 역량이 우수한 기업·기관의 프로그램을 30개 내외로 선정할 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트랙의 최종 선정은 2026년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오상근 기자

#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일자리 창출 협력

## 전북개발공사-전북자치도일자리센터-BGH KOREA, 업무협약

전북개발공사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공사 본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BGH KOREA(모항해나루가족호텔 운영사)와 함께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일자리 알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에 위치한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도내 우수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전북개발공사는 호텔의 직무별 인력 수요를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는 전문 취업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적합한 인재를 발굴·알선한다. BGH KOREA는 알선된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호텔 측은 서비스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사회 역시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 전통발효식품 유래 K-유산균 식품 원료 등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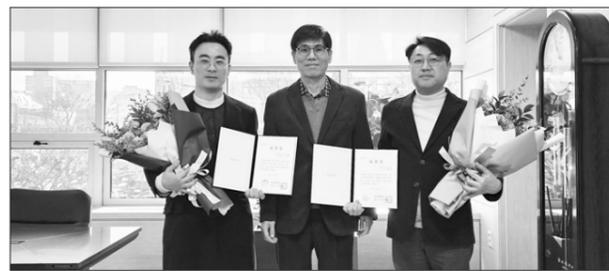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토착 유산균을 식품 원료로 공식 등재해 K-발효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김치와 장류 등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 균주는 투코노스톡 락티스(*Leuconostoc lactis*)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니투스(*Pediococcus inopitatus*)다.

양 기관은 올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해당 유산균의 식용 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두 균주는 오랜 기간 국민이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접과 함께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임이 확

인됐다. 또한 국제낙농연맹(IDF), 유럽 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 공인기관에서도 식품 원료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은 물론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이번 식품원료 확대가 K-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통 미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난 12월 23일 행정예고됐으며, 관련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과 농촌진흥청의 발효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와 화폐수급 업무에 기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재 포상을 실시했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 총재 포상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경제와 화폐수급 업무에 기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재 포상을 실시했다.

전북본부는 30일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화폐수급 및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 2명에게 '2025년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전북은행 프로세스혁

신부 김삼택 부장과 현대자동차 전주 비즈니스지원팀 과장단 책임매니저다. 김삼택 부장은 화폐수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발권 업무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장단 책임매니저는 지역경제동향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산업과 경기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오상근 기자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계약자를 포함해 농업인 위탁자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5년부터 농

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